

광주시 정책이력제 운영 저조... 원문 공개도 '찝끔'

안평환 시의원 "정책실명제 실적도 특광역시 최하위 기록" 지적 이귀순 시의원 "전방·일신방직 부지 개발, 민간사업자 이익만 고려"

시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정책이력제 운영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안평환(민주·북구1) 의원은 3일 열린 제316회 임시회 시장질문을 통해 "정책이력제가 시행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또 정책실명제 추진 실적도 최근 5년간 특광역시 가운데 광주시가 최하위를 기록했다고 질타했다.

추진 실적을 보면 부산은 744건으로 연평균 148건인데 비해 광주는 148건으로 연평균 30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울시의 경우 정책실명(이력)제로 선정된 사업의 개요와 공문서 등 원문이 시민에 공개되고 있지만, 광주시는 극히 일부만 형식적으로 공개돼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총 사업비 489억원이 투입된 무등경 가장 리모델링 사업도 야구 경기로 인한 주차, 교통 문제로 고질적인 주민 민원과 갈등이 일어나고 있

지만, 단 한 번도 정책이력제 사업으로 선정되지 않아 관리가 되지 않았다"며 "시민의 알권리와 행정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정책이력제 관리 사업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답변에 나선 강기정 광주시장은 "정책이력제 관리 대상 사업으로 결정되면 구체적인 평가와 추진 과정이 공개돼야 하지만, 제대로 관리되지 못한 점을 인정한다"며 "민선 8기 들어 전남·일신 방직 자료나 여등산 개발 관련 기업 자료를 홈페이지에 공개한 것처럼 체계적인 이력관리를 위해 온라인서시스템과 행안부 정보공개망을 연계해 관리 대상 사업 결재 원문을 바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시청 핵심 과제와 공익사업 등과 연계해 선정 규모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질문에 나선 광주시의회 이귀순(민주·광산4) 의원은 전방·일신방직 공장부지 개발과 관련, "민간사업자 이익만 고려된 설계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시민들의 공론화 과정없이 결정된 증수제한 폐지한 달여 만에 전방·일신방직터부지개발에 초고층으로 설계된 작품이 선정됐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선 7기의 주거 위주 개발을 지양하고 전략적 중심상업지 조성을 하겠다는 기초를 민선 8기에 들어 갑자기 바뀐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다"고도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이어 "시는 지역별로 차별화되고 차등화된 높이제한 조치를 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이러한 결정권이 있는 도시계획위원회 구성과 도시계획

혁신의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공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답변에 나선 강 시장은 "민선 7기인 2020년 4월 1차 사업제시 당시 4760세대이던 주거개발이 민선8기 출범 후 4236세대로 500세대 적어졌고, 당초 30개동을 짓겠다고 계획도 12개동으로 줄었다"며 "주거 지양이라는 민선 7기 원칙은 전혀 바뀌지 않았고 오히려 더 지역과 주변에 어울리는 협상을 진행 중이고 기여금도 1677억원에서 2521억원으로 늘었다"고 반박했다. 강 시장은 이어 "도시계획위원회를 공개해야 된다"라는 공개 검토 지시로 세 가지 원칙을 수립해 가고 있다"며 "투명 원칙에 철저히 부합한 도시계획위원회가 되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모판 준비 분주한 농촌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3일 광주시 남구 대지동 농민들이 모판준비작업을 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전남도, 농업 세계 1위 대학과 미래 협력

네덜란드 와게닝겐대 연구시설 시찰...농산업 융복합지구 구상

유럽을 방문 중인 김영록 전남지사가 2일(현지 시간) 농업 분야 세계 1위인 네덜란드 와게닝겐대와 최첨단 국가연구소인 시설원예연구소(NPEC)를 둘러보고 첨단 농업 융복합지구 조성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와게닝겐대는 1997년 세계 최초로 농업대학과 연구기관을 결합해 운영하는 농·임업 분야 세계 1위 대학교다. 대학의 기초연구와 연구기관의 실용화 연구가 유기적으로 잘 맞물려 세계적 연구개발 성과를 내고 있다.

또 연구기관, 세계적 농업 관련 기업과 함께 '와게닝겐 푸드밸리'를 조성해 운영하고 있다. '와게닝겐 푸드밸리'는 산·학·연·관 협력 네트워크를 긴밀하게 정착, 네덜란드 국내총생산(GDP)의 10%인 70조원의 연매출을 달성하고 있다. 1만 5000명의 과학자와 2600여 식품 관련 회사, 20개의 연구기관이 와게닝겐시 주변 30km 내에 분포해 세계적 농식품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다. 우

리나라의 경상남도 면적에 불과한 네덜란드를 농산물·농식품 세계 수출 2위 농업강국으로 끌어 올린 주축이다.

특히 와게닝겐대학에 설치된 최첨단 국가 연구 시설인 시설원예연구소는 와게닝겐대학과 위트레흐트대학이 공동으로 정부 지원을 받아 구축하고 운영하는 시설이다. 시설원예연구소는 최첨단 디지털 융합 기술을 활용한 6개의 시설장비가 갖춰졌고, 각 시설장비에는 특수카메라 센서가 설치돼 식물의 상태와 크기, 온도, 습도, 광도 등을 측정하는 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김영록 지사는 "인공지능이 함께하는 새로운 농업혁명은 단순히 생산량의 증대뿐만 아니라, 농업 전후방 산업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만한 파괴력을 갖고 있다"며 "농도 전남에 '인공지능 첨단농산업 융복합지구'를 조성해 농산업에 정보통신 기술(ICT)을 결합하는 융복합 인재도 길러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

전남도 "군 공항 소음, 활주로 이격 설치로 대폭 감소"

12일까지 나주·함평 등 '광주 군공항 이전 바로알기 캠페인'

전남도가 새롭게 조성되는 군 공항의 소음이 현재 광주 군 공항의 그것에 비해 크게 감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기 시작했다. 무안군 민 등이 군 공항 이전을 반대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로 '소음'을 꼽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보 제공·과장이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전남도는 오는 12일까지 권역을 나눠, 광주 군 공항이 민간공항과 통합 이전해도 활주소가 이격 설치돼 24시간 공항 운영이 가능하다는 군공항 면적과 소음 완충지 대폭 확장으로 전투기 소음의 영향이 줄어든다는 내용을 설명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3일 "최근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로 빚어진 지역 간 갈등을 해결하고 도민에게 군공항

이전의 장단점을 올바르게 알리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광주 군공항 이전 바로알기 캠페인'에 나섰다"고 밝혔다.

캠페인은 오는 12일까지 나주·함평·무안·목포와 광주, 순천 등 권역별로 진행된다. 캠페인 첫 날인 3일 전남도 도로교통과 직원 20여 명이 나주역과 무안·함평·목포지역에서 전단지 배포하고 군공항 이전 방향 등을 설명하고, 도민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캠페인에서는 군 공항이 민간공항과 통합·이전해도 민·군항공 활주로는 1.3km 이격해 설치되며 민항기와 군용기가 동시에 이·착륙할 수 있고, 이 때문에 24시간 공항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했다. 또 새로운 군 공항은 전투기 소음 저감 대책을 입지 선정부터 운영 시까지 단계별로 검토해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이라는 점을 안내했다. 군 공항 예정지는 주변에 취락지가 없거나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으로 선정하고 비행 경로와 활주로 방향, 주변 지형·지물, 전투기 훈련 횟수, 시간대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한 소음 저감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도 소개했다.

실제로 소음 저감을 위해 현재 광주 군 공항 면적(8.2km²)보다 약 2배 확장된 15.3km²로 새로운 군공항을 건설하고, 기존 군 공항에는 없었던 소음 완충지를 추가로 확보해 전투기 소음의 주변 영향을 저감하는 내용을 알렸다. 또 군 공항 건설 후 소음 억제와 관리 등 저감 대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

광주시, 장티푸스·이질 방역체계 가동

수인성·식품매개 질환 신속 대응...9월까지 비상근무

광주시는 "하절기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9월 30일까지 비상방역체계를 가동한다"고 3일 밝혔다.

하절기는 기온상승, 장마 등으로 미생물 증식이 쉬운 환경이 조성되면서 장티푸스,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세균성이질, 장관감염증(노로바이러스·살모넬라균·캠필로박터균 감염증 등)과 같은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이 급증하는 시기다.

최근에는 코로나19 방역조치가 완화되면서 외식과 야외활동의 증가로 집단발생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광주시와 5개 자치구는 집단감염 발생 시 신속한 보고와 원인규명을 위한 역학조사 등 감염병 대응을 위해 이달부터 9월까지 평일에는 오후 8시까지, 주말·공휴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비상근무를 한다. 24시간 비상연락체계도 유지한다.

임진석 광주시 감염병관리과장은 "2인 이상 설사·구토 등 유사한 증상의 환자가 집단발생할 경우 가까운 보건소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며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해 올바른 손 씻기, 음식을 충분히 익혀먹기 등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일보 **40** 중흥그룹 SINCE 1983

더 특별하게 설계합니다
더 아름답게 짓고 있습니다
클래스, 그 이상을 넘어

Beyond the CLASS
중흥S-클래스